

“맹꽁이, 우린 아직도 옛 대한방직 터에 살고 있어요”

전북환경영 “전북환경청, 복합개발 맹꽁이 서식지 반영해야”
옛 대한방직 터 포획·이주 후에도 2년 연속 맹꽁이 서식지 확인
맹꽁이, 귀소본능 강해 대체서식지 조성 방사해도 생존율 회복

장맛비가 내린 지난 14일, 전북환경
운동연합(공동대표 유남희 정현숙 이
정현 반정수)이 전주 삼천면 대한방직
터에서 오후와 저녁 두 차례에 걸쳐
맹꽁이 청을 조사한 결과, 삼천면 세내
로 게이트 좌우 부지 및 경계 수로, 마
전로 KBS와 경찰청 맞은편 구간 등 네
지점에서 맹꽁이 울음소리를 확인했
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11월, 사업주
인 (주)자광측이 맹꽁이 성체 63마리,
어린 새끼 544마리를 포획해 건지산
오송제 주변에 이주했다고 전북지방
환경청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24년 5월 29일에 이어 올해도 맹꽁
이 울음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반북된 서식지 훼손과 포획·이
주 사업 불구하고 2년 연속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것은 여전히 대한방직 터
가 여전히 맹꽁이의 주요 서식지임을
 입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맹꽁이는 귀소본능이 매우 강
하다는 사실이 간과되면서 포획, 이주
의 대체서식지 마련 시 생존율이 회복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
사 추진 이전에 조속히 공원부지조성
지구 내에 서식지부터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23년 7월 10일에
(주)자광이 신청한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맹꽁이에 대한 포획 및 방사 허가
를 내줬다.

그러나 당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맹
꽁이 포획 및 방사 허가가 첫 장마 시
작된 날의 포획 누락과 이주 대상지인
삼천 생태학습장이 부적절한 대체 서
식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환경청은 맹꽁이 서식에 적합
한 초지, 경작지가 풍부하며, 번식을
위한 평지형 초지가 다수 존재하는 건
지산 오송제 생태공원 주변에 이주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4년 5월
29일, 2025년 6월 14일 두 해에 걸쳐
짜를 찾는 맹꽁이가 대거 발견된 것으
로 볼 때 포획 이주 사업이 맹꽁이 보
호 대책으로 적절했는지 판단할 시점
이다. 23만㎡ 넓은 터에 모든 맹꽁이를
찾아내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서 “대체 서식지 이전은 불가
피한 경우로만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외부 대체 서식
지로 이주한 맹꽁이의 생존율은 5%
에 불과하다. 전주시가 2021년 5월, 삼
천 서곡 좌안 수변을 생태학습장으로

개발하면서 맹꽁이를 포획·이주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사 후 230여 마
리를 다시 방사했지만, 식생과 지형이
변화로 맹꽁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2022년 산란기 조사에서는 한두 마리
정도 울음소리만 겨우 들렸습니다. 사
후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아예 확인되
지 않았다.

실제로 7년전 전주시 중화산동 전주
우석대한방병원 인근 소류지에 맹꽁
이가 집단 서식했는데 원룸촌 택지개
발과정에서 50여마를 포획해 70여m
떨어진 곳에 새롭게 구덩이를 파고 방
사했지만 한마리도 발견되지 않고 이
후 다시 원룸촌 주변을 떠돌고 있었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 이모(60)씨는
“맹꽁이는 귀소본능이 매우 강하기 때
문에 새로운 서식지를 마련해 방사한
다할지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희
박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본격적
인 옛 대한방직개발사업 추진 이전에
먼저 시일내에 공원부지 인근에 맹꽁
이 서식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나마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길이다”고 말했
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권 맹꽁이
서식지 보호에 대해 ▲전북지방환경
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맹꽁이 서식지
보전 방안 반드시 반영 ▲전주시는 부
지 내 보호 대책 사업자와 협의 ▲췌
자광은 자사의 개발 철학에 부합하는
계획 수정 단행 등 3개항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맹꽁



이미지 상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배치도. 하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이는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끈
질기게 살아남을 것이다. 부지 내에 적
절한 서식 환경이 조성되면 이들은 다
시 그곳에 자리 잡을 것이다”며 “매년

/정재근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전북남녀 ‘오작교’

‘H-불명물명’ 이벤트 개최
완주 명소서 36명 만남 주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장현
구) 주관으로 전북자치도 완주군 인구
10만 돌파 기념 15만 달성 기념 미혼남
녀 만남 이벤트 ‘H-불명물명’ 행사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나는 솔로 H로맨스’라는 타
이틀 아래 전북지역 미혼남녀를 대상
으로 한 차례 전개된 이 이벤트는 올해
는 완주군 내 새로운 여행명소로 각광
받는 아마존 아쿠아파크와 카라반파크
를 무대로 총 3차수에 걸쳐 36명의 미
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올해는 프로
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1차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2차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3차수는 반려견 혹은
반려묘를 키우거나 좋아하는 사람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참가자들이 공통 관
심사를 중심으로 쉽게 친밀감을 형성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들 참가자를 위해 전북도립미술
관 관람, 바베큐 파티, 불명 물명 타임,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함께 여행하고 파
티를 즐기는 기본으로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완
주군 인구 10만 돌파 축하와 15만 달성
을 기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일
조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H-불명물명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행사 추진배경
을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전북도는 17일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사진=전북도>

전북, 농촌 서비스 인재양성 거점 문 열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센터’ 개관
전국 유일 농촌서비스 교육출범
140억 투입 준공 연 1만 명 교육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김제시 백구
면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
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
성우 농촌정책국장, 김중훈 전북특별자
치도 경제부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전
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농업복지환
경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
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
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문을 연 지원센터는 2022년 농
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40억 원(국비 70억, 도비 35억, 시비 35
억, 특교세 25억 원)을 투입해 3년 만에
완공됐다.

지원센터는 연면적 2,958㎡ 규모로 지
하 1층, 지상 4층에 걸쳐 강의실, 교육생
휴게공간, 숙박시설 등 교육환경을 갖췄
다. 특히 지난 4월 ‘농촌 지역 공동체 기

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지원센터는 연간 1만여 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규모로,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
화를 위한 인재 육성과 교육,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센터 개관을 계기

로 농촌 지역의 서비스 인프라를 보강하
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기반
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지원센터는 지
역공동체 육성과 함께 농촌 사회서비스
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촌의 구조적 문
제 해결에 기여하는 거점공간이 되길 기
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이춘석, 전준위원장 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과 새 정부 핵심기구인 전준위 위원장
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분과장을 동
시에 맡았다.

이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
난 16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
위원회의 경제2분과장에 임명됐다”며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기구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수

행하게 된다. 경제2분과는 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업업, 주거, SOC
등 주요 경제 관련 분야를 담당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이
의원을 임명했다. 전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는 당
내 기구로서, 향후 개최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기본 방향과 규칙 등을 마
련하게 된다. 전준위도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8월 2일 임시전국당원대회를
열어 공식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
출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자동차·뿌리·특장·항공 100억 규모 지원

기업지원설명회·세미나 열어 중소기업 R&D·시제품 지원 자동차·항공 등 전방위 육성

전북자치도는 17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협력해 도내 자동차·뿌리·특장·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기업지원사업 설명회’ 및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 기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총 10개 사업, 약 1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산업 분야 3개 과제(미래차 부품 전환 지원사업 등) △뿌리산업 분야 2개 과제(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등) △특장차 및 항공산업 분야 5개 과제(특장차 산업 활

성화,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수요맞춤형 항공산업 육성지원 등)이 포함됐다.

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술개발,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기술 애로 해결 등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내수 부진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강조됐다.

‘기업지원사업 설명회’와 함께 진행된 ‘기술 세미나’에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각각 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는 상용차 제품 및 기술 개발 현황과 미래 방향을 소개했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해



전북자치도는 17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협력해 도내 자동차·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설명회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기업지원사업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일 열리는 평가위원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가능하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와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탄소기업 표준·인증 전략 ‘앞장’

토탈솔루션 설명회 개최 탄소제품 판로확보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대한민국 탄소기업의 기술 신뢰성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사업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는 17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탄소소재 응용 제품의 기술 표준화와 국내외 인증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솔루션 기업대상 전략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

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는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탄소소재 및 부품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표준 및 인증 제도의 필요성과 전략 △정부 지원 방향 △탄소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등이 소개됐다.

또한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솔루션 기반구축 사업 개요(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단체표준화 제도 소개(한국표준협회) △표준개

발 및 보급사업 성과와 향후 방향 △탄소복합재 표준 개발 동향 △시험·평가 장비 활용 방안 등 총 6개의 전문 세션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사업 소개를 넘어 중소기업이 개발한 탄소제품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를 위해 인증기관과 유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탄소

기업들이 국내외 표준과 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시장으로 나아갈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진흥원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탄소산업은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핵심 산업으로,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표준·인증 기반 마련과 제도적 지원에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농진청 개발 쌈배추, 지방간 예방 탁월

고글루코시놀레이트 배추 체내 물질 전환 항산화 활성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개발한 글루코시놀레이트 고함량 배추가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예방에 효과적임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식물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분으로, 체내 활성산소 축적을 막아줘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과 관련된 호르몬 생성과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겪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간경변, 간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소포자배양 기술을 이용해 고글루코시놀레이트 쌈배추를 개발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중에서도 항암성분으로 알려진 글루코라파닌과 글루코나스터틴이 일반 배추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돼 있다. 연구진은 이 배추가 대장암세포 생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관련 내용을 특허 등록한 바 있다.

경희대학교(이석근 교수 연구팀)와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 유리 지방산을 처리한 간세포의 지방이 약 1.5배 증가했으나, 고글루코시놀레이트 쌈배추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의 지방 축적량은 약 80%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9주간 고지방 식이를 한 쥐의 간 무게가 1.5배 증가했으나 고지방 식이를 하면서 고글루코시놀레이트 쌈배추 추출물을 함께 먹은 쥐의 간 무게는 1.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내장지방도 고지방 식이를 한 쥐가 3.3배 증가할 때 고글루코시놀레이트 쌈배추 추출물을 함께 먹은 쥐는 1.9배에 그쳐 내장지방 축적 억제 효과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 특허 2건을 출원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인체 적용 시험과 기능성 인증 등을 거쳐 기능성 쌈배추를 상품화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요리법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수확 후 저장성을 개선하는 등 품질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은 17일 ‘글강 프로젝트’에 선정된 전북내 기업들과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전북중기청>

전북중기청, ‘글로벌 강소 1000+’ 기업 현판 수여

익산주얼리협동조합 등 전북 지정 17개사 현판 수여식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17일 익산주얼리협동조합에서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이하 글강 프로젝트)에 지정된 기업들에게 지정서와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글강 프로젝트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부 및 전북도 등 수출·금융·R&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선도기업은 ‘24년도 수출액이 10만 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지정된다.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17개사가 글강 프로젝트에 지정됐다. /김영태 기자

이번 수여식에는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인 익산주얼리협동조합 등 5개사가 참석했고, 지정단계가 유망 및 성장기업인 12개사는 6월초 기업별로 지정서와 지정패를 전달했다.

수여식이 개최된 익산주얼리협동조합(대표이사 박상권)은 ‘13년 설립, ‘24년 매출은 89억원(‘21년 매출 14억원)으로 이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의 99%(21년 수출비중 2%)로 ‘21년 대비 매출은 6배, 수출은 290배로 급성장했으며, 올해는 수출액 150억원 달성이 목표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고, 미국 관세 등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며 “글강기업으로 지정된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속에 우뚝서는 기업들이 되어달라”고 격려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반도체 생태계 조성 산·학·연 머리 맞대

반도체 소재·소재社 간담회 스마트센서 실증센터 구축 제안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에 집적된 소재·소재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협력에 나섰다.

도는 17일 백리향에서 동우하이텍, 한솔케미칼, KCC, 광전자, 오디텍, P&L세미, OCI 등 도내 핵심 반도체 소재 및 소재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육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를 전북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도의 산업 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전북테크노파크 이광현 단장이 ‘전북형 반도체 산업 로드맵’을 소개하고, 전북대 임연호 교수가 ‘스마트센서 실증센터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 기업들은 실증 장비 확보, 연구환경 개선, 지역 인재 양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서 소재·소재 국산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전북에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산·학·관 협력 기반을 강화해, 전북만의 특화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17일 도내 핵심 반도체 소재 소재 기업들과 ‘반도체산업 육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침이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내 반도체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스마트 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해 전북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청-LX, 새만금 미래도시 ‘디지털트윈’ 협력

양 기관 새만금 발전 간담회 AI·공간정보 활용 협력 강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지난 17일 새만금지역의 전략적·장기적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디지털트윈의 정보 및 기술자산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지역의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재난·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km)를 구축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산업, 관광 등 통합적인 국책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새만금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체 디지털국토플랫폼(LX플랫폼)을 구축해 공간정보 기반 데이터 통합·활용 체계 구축 및 오픈소스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 재난재해, 기후변화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개발 경로(자체 개발, AI허브, 공모지원)를 통해 AI플랫폼(Land-XI)을 단계적으로 구현했다.

이러한 접근은 AI 분석 자동화를 통해 휴먼에러와 주관적 편향을 배제하고, 데이터 전수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관리체계 구축 △AI 기반 데이터



새만금개발청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지난 17일 새만금지역의 전략적 장기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분석 및 예측 기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공간정보는 스마트시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첨단 미래 도시 도약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이주와 부사장은 “공사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 지역이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조달청, 군산 (주)백현이앤에스 현장 애로 청취

에너지저장장치 기업 방문 현장 중심의 지원 강화

전북지방조달청(청장 한창훈)은 17일 신규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인 (주)백현이앤에스(전북 군산 소재)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확인하고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백현이앤에스는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기업이다.

이번 2025년 1차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비점촉 열화상 온도맵을 구비한 화재 및 재난방지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비점촉 열분포 센서를 활용한 열 모니터링 기술과 원격으로 특정 채널의 전력을 개별 차단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으로, 시



스템 안정성과 에너지 관리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우수조달물품이 수요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판로 확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김영태 기자



심과 사색의 여정 ‘성지혜움길 다이로온 익산여행’

익산시가 치유 관광 프로그램 ‘성지혜움길 다이로온 익산여행’을 통해 심과 사색을 더한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익산시는 ‘성지혜움길 다이로온 익산여행’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도 여행의 감동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성지혜움길 다이로온 익산여행은 2024년까지 3년간 운영된 ‘4대종교문화체험 다이로온 익산여행’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종교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치유형 순례 여행이다.

4대 종교(원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성지를 중심으로 익산의 대표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는 1박 2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4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전국에서 171명의 관광객이 참여했다. 특히 참가자 만족도는 94.1%에 달해 자발적인 입소문과 재참여 의사를 유도할 만큼 높은 호응을 입증했다.

시는 오는 9~10월 총 6회의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5년 1기분 자동차세 47억 부과…30일까지 납부

정읍시가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47억원 규모의 2025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약 4만 3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6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가 45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 압류·변호관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금융기관·우체국 창구뿐만 아니라 ATM/CD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ARS,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운영 중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독립운동사 기리다 한일의병장 임병찬 장군 ‘충혼제’

군산 출신의 항일의병장 임병찬(林炳瓚, 1851~1916) 장군과 의병 35인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민족정신의 기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충혼제가 열린다.

18일 오전 10시, 군산문화원 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기리고 의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로 군산시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마련됐다.

조선 말기 유생이었던 임병찬 장군은 군산 출신의 대표적인 의병 인사로, 대한제국 시기 전라 지역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항일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행사는 분향과 헌화, 추모사, 의병 활동을 기리는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맥주와 음악에 젖는다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20일~22일 근대역사박물관

여름밤, 군산이 수제맥주와 블루스 선율로 물든다.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입장료는 6,000원으로 이 중 5,000원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다. 관객들은 이 상품권을 이용해 행사장에서 맥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군산시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전국의 맥주 애호가와 블루스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군산 보리맥아로 만든 ‘군산맥주’를 중심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 교류 도시의 맥주 업체도 참가해 다양한 맥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군산 수제맥주는 지난해보다 1,000원이 내린 1잔 4,000원에 특별 판매하기로 결정, 관람객들이 부담 없이 ‘군산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의 백미인 블루스 공연 역시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일본의 Blues Company, 미국의 Joce Reyome, 그리고 국내의 김목경 밴드, 한상원 밴드, 최항석과 부기몬스터와 한영애, 체리필터, 박완규밴드 등 국내외 16개 밴드가 출연해 깊이 있는 블루스의 매력과 락 음악도 선사한다.

최고의 밴드가 군산항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치는 블루스 선율은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



할 전망이다.

올 축제는 혜택도 풍성하다. 축제 기간 후원업체들이 제공하는 1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 상품권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도시공단, 집중호우 대비 시설안전 점검

현장 발만사향 청취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집중호우 대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지영 이사장은 지난 16일 공단이 운영 중인 시설 중 노후도가 높은 국민생활관을 직접 방문하여, 집중호우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건물 내·외벽 균열, 누수 여부, 배수시설 작동상태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사장은 현장 관리 담당자에게 신속한 보수 조치와 예방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현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 사항과 개선 요청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체육시설 내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지영은 지난 16일 노후도가 높은 국민생활관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점검했다

<사진=익산시>

공기정화 장비 확충, △프로그램 수강 인원 확대 운영, △사위실 등 편의시설의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지영 이사장은 이에 대해 “시민의 권은 시설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하고, 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친환경 조선산업 이끌 맞춤형 인력 양성

급변하는 세계 조선산업 대응 ABS자격증조선산업 자동화 등

군산시가 친환경스마트 조선산업을 선도할 ‘조선업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조선산업에 빠르게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취업 연계까지 추진하여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세계 조선산업 시장은 △세계적인 산업의 환경 변화 △기술 혁신으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 △자동화·

로봇화 등 첨단 기술 도입 가속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뛰어난 전문 기술 인력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기업 수요에 맞춰 기존 특수용접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세부적으로는 △ABS(미국선급협회)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고 기술 습득 심화 과정 △조선산업 자동화디지털화에 대응할 자동화 설비, 조선 설비 설계용 △설계 조립과정을 신설했다.

이중 특수용접 심화 과정은 25일 개강하며, ABS 선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국제 표준 품질에 부합하는 용접 기술과 FCAW(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 인증 취득을 위한 고효율 용접 기술교

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선업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교육은 전북인력개발원(군산시 동장산로 119, 소풍동)에서 진행되며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생에게 교육비와 실습재료, 교재, 중식, 통학버스가 무료로 지원되며,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20만 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전북인력개발원 누리집(https://jb.korchamhnd.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북인력개발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시민과 소통하는 정읍시…공약사업 추진도‘함께 결정’

17일 시민소통위원회 개최

정읍시가 민선8기 주요 정책 조정을 앞두고 시민소통위원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하며 공약 실행의 투명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17일 중회의실에서 시민소통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5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소통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정읍시의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단순한 보고가 아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은 “모든 정책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시민과의 소



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모든 정책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시민과의 소

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개최

통합돌봄, 사회적경제 주체로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과 참여 가능성을 조망하고, 지역 단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 등 다양한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의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

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대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지역 돌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간 협력 구조 설계,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된다.

참석자들은 토론으로 결과를 도출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실천 사례와 제도 설계 간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군산시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가 통합돌봄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설계가 연결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여름철 고온 다습 식중독 예방 총력

식품위생영업소 집중 관리

익산시가 여름철 시민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식품위생영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위생 수준 진단과 현장 지도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총 990여 개소를 점검했다.

아울러 오는 20일까지 위생취약시

설인 사회복지시설 53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

7월에는 배달 전문 음식점과 살모넬라 우려 음식점을, 8월에는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유치원과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식품취급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손씻기 △구분 사용하기 △악취 먹기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보관관도 지키기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력을 높이고 있다.

시는 여름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여름방학맞춤형 특강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수업 참여율 낮은 고2·3 학생 대상

정읍시가 교과수업 참여율이 낮은 고2·고3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강을 통해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나선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중·고등학생의 학력 증진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으뜸 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특히 수업 참여도가 낮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강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6일

까지 총 8일간 정읍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수험생들에게 수요가 높은 사회탐구 과목인 ‘생활과 윤리’와 과학탐구 과목인 ‘생명과학’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이 심화학습과 실전 대비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과목별 20명씩 총 40명이며, 대상은 지역 내 인문계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이다. 기존 지역 으뜸 인재 교과수업 참여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www.jc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으뜸 인재육성사업 사무실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함께 돌본다” 익산시 통합사례관리 간담회

유관기관 협업사례관리 다져

익산시가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통합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익산시는 17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사례관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역할과 사례

관리 대상자 연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기관 간 실질적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촘촘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체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 사례관리 연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협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통합적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시, 기초생활거점조성 본격화

국비 등 180억 확보 죽산·봉남 정주여건 개선 자생력 활력 유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6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지구 공모사업
에 선정돼 총 18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
혔다.

시는 이번 공모로 인해 죽산면에 향
후 5년간 120억원, 봉남면에 60억원을
투입해 정주 여건 개선 등 생활권을 조
성할 계획이다.

죽산면은 김제 서부생활권의 핵심지
역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통합형)에 공모선정돼
청년창업인 유입과 MBC 다큐 <오느른
> 등 미디어 콘텐츠로 인해 외부의 주
목을 받는 지역이다. 지난해 9월 죽산
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준공됐지
만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120억 원(국비
84억 도비 10.8억 시비 25.2억원)을 투
입해 먹거리 상가, 예술광장, 공영주
차장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



<사진=사업계획도>

하고, 마을기록 다큐 제작과 문화예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봉남면은 김제 동부생활권 지역으
로 김제시의 15개 읍·면 중 마지막 지
역으로 선정돼 주민들의 바람이 마침
내 이뤄졌으며 총사업비 60억 원(국
비 42억 도비 5.4억 시비 12.6억원)을
투입해 복합커뮤니티센터(H/W)를 신
축하고, 지역리더 및 주민전문가 육성,

배달공동체 양성, 지역축제 개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추진
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 간 생활
격차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의 자생력 활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죽산-봉남 모델을 김제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행정이 주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20일 팡파르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서 농산물 판매 체험 다채

고창군에서 복분자, 수박, 장어를 테
마로 한 ‘제22회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
일간 싱그러운 신록으로 물든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수박 빨리 먹기, 수박 빨리 나르
기, 장어물 3종경기, 장어잡기가 진행
된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DJ와 함
께하는 물총 싸움과 어린이 풀장이 운
영되며 관광객과 한바탕 물싸움이 펼
쳐질 예정이다.

어린이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서로에게 물총을 쏘아대
며, 때 이른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버
린다.

또 장어잡기 행사때 장어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손질된 장어로 교환
해주며, 백호장어를 잡을 시 추가 경



고창군에서 복분자, 수박, 장어를 테마로 한 ‘제22회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복분자
와 수박축제’가 열린다.
<사진=고창군>

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창 농·특산품 판매장에서는
해풍을 맞고 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우수한 고창의 맛좋은 복분자와 수박
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관광객이 복분자와 수박을
구입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차
장에 판매장이 마련됐다.

김용진 고창군 농업정책과장은 “오
리지널 고창 수박과 복분자로 원기충
전도 하시고, 재미있는 체험도 즐기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다”며 “많은 분
들이 축제에 방문해주셔서 맛과 멋을
즐기시고, 고창에 힘찬 응원도 해주시
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격포항 수산시장, 7월 1일 영업 재개

설 명절 앞 화제 피해 빠른 복구극복 사례 주목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격포항
수산시장이 마침내 새롭게 단장해 오
는 7월 1일 재개장을 알렸다.

이번 재개장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 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
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격포항 수산시장은 전북도와 부안군
의 적극적인 복구 지원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복구를 마무리하며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재개장으로 격포항 수산시장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
났으며, 특히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을
강화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
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재개장은
화재로부터 신속히 상업 기반을 복구

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심
혈을 기울였다”며, “격포항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
고,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으로 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격포항 수산시장은 과거의 시련을 딛
고, 다시 한번 활기찬 어항도시의 중심
지로 거듭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
꾸며 새롭게 태어난 격포항 수산시장
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기대한다.

/부안=신상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관내 기업 근로자 격려

“지역경제 발전 원동력” 영농조합 등 3곳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관내 기업 근로자
격려 행사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돼주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
다.

심 군수는 17일 오후 고창군로컬JOB
센터가 진행한 문화의 날 행사 ‘간식잡

(JOB)고 행복잡(JOB)고’의 일환으로 관
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과 소통
의 장을 가졌다.

‘간식JOB고, 행복JOB고’는 근로자들
이 직접 재직 중인 기업의 소개·자랑을
통해 총 12개의 기업을 선정해 피자과
치킨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다.

지경영농조합법인, 좋은사람들주간
보호센터, 사임당푸드 3곳의 기업체에
직접 방문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고생

하는 근로자들에게 간식 전달을 하고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많은 근
로자들의 노력이 지역경제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 항상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해 여
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국 보치아 선수권대회, 부안서 개최

18~20일 부안실내체육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기대

전국의 보치아 선수들의 열정과
스포츠 정신을 마음껏 펼치는 제9회
부안 붉은노을배 전국 보치아 선수
권대회가 18일부터 20까지 3일간 부
안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보치아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
을 펼칠 예정으로,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 확대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치아는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효자 종목이지만 비장애인들에게
는 다소 생소한 스포츠로 우리나라
는 1988년 서울패럴림픽에서 최초
로 보치아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했

으며 한국 보치아는 2024 파리 패
럴림픽까지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
낸 보치아 강국이다.

그리스의 공 던지기 경기에서 유
래했고, 국제 뇌성마비 스포츠레크
리에이션 협회에서 볼링과 비슷한
스포츠로 소개된 보치아는 선수들
이 총 6개의 공을 경기장 안으로 굴
리거나 발로 차서 표적에 가장 가
까이 던진 공의 개수를 합해 승패
를 겨루는 경기로 마루 위의 컬링
으로 불린다.

대회의 개회식은 18일 오후 5시,
부안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며,
부안군장애인체육회 회장이자 부
안군수인 권익현 부안군수가 선수
단과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의의회, 전년도 결산안 등 심의

부안군의의회(의장 박병래)는 17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2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요 일정으로
는 17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을 청취하며, 20일부터 26일까지는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
사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27일 제5차 본회의에
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

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부
안군의의회가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
었다”며, “그동안 부안군의의회는 현장
을 직접 살피며 해법을 찾기 위해 부
단히 노력해왔으며, 남은 1년 역시 군
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주말 집중호우 상황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큰 피해없이 넘어갈 수 있
었음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올 장마철
에도 철저한 대비로 군민의 안전에 만
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이달의 소장품 ‘신선로’ 기획전

7월 13일까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벽골제농경문화
박물관은 <이달의 소장품> 전시로 ‘신
선로 왕실의 화로에서 민간의 밥상으
로’라는 주제의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17일부터 오는 7월 13일
까지 벽골제리랑사임소 내 벽골제농
경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
되던 화로형 조리도구 ‘신선로’의 기원
과 구조, 그리고 이 기구를 이용해 조리
한 ‘열구자탕’의 전통을 고찰한다. 아울
러 이 조리도구가 민간에 전해져 ‘신선
로’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음식 자체를
지칭하게 되는 변화 과정을 조명한다.

‘신선로’는 조선 궁중의 잔치상에서
사용된 독특한 화로형 기물이다. 이 안
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끓인 ‘열구자탕’
은 ‘수문사설’을 비롯한 왕실 의궤 ‘원
행을요정리의궤’, ‘자경전전작정례의
궤’ 등에 등장하며 궁중음식으로 정작
됐다. 이후 민간에서는 ‘신선처럼 먹는
화로’로 인식돼 ‘신선로’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20세기 초에는 기구와 음식 모
두를 지칭하는 대중적 용어로 고착됐
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전시는 신
선로라는 음식과 기물을 통해 조선 궁
중의 식문화가 민간으로 전승되는 과
정을 보여주는 한편, 전통 식문화의 정
체성과 미감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경영인 포럼’ 지역경제 성장 모색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17일 지평
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제9
회 ‘김제 미래발전 경영인 포럼’을 개
최하며 눈길을 끌었다.

경영인 포럼은 상공회의소 단독설
립을 위한 경영인 역량 강화를 목적
으로 2023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9회
를 맞이했으며, 관내 기업대표 및 금
융기관 지점장 등 약 7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초청 강사는 김상윤 중앙대학
교 컴퓨터공학과 연구교수로 ‘AI 특
이점 시대, 기술은 어떻게 제조업을

바꾸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참
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서 김 교수는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라며, AI
친화적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등 관내 경영인들과 활발히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시민
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민생경제
도시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
로도 지역 경영인들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23~29일까지 반딧불이 생태여행 참가자 모집

고창군이 운곡람사르습지에서 오는
23~29일까지 ‘반딧불이 관찰 프로그램-반
디숲 이야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반딧불이 행사는 매년 6월과 9월 운곡습
지에서 고창군 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
합(이사장 김대원)주관으로 열린다.

전문가와 함께 반딧불이 생태 관찰과 생
애 주기 알아보기, 나뭇잎 손수건, 반디소
망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함께 진행한
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이며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반
딧불이의 짝짓기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빛
사용은 최대한 자제된다.

또한 반딧불이의 서식지 보호와 산란 활
동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50여명만
사전신청을 받아 7일 동안만 운영되며, 참
가비는 유료이다.

최순필 고창군청 세계유산과장은 “청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미래 세대
도 오래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운곡습지 환경
보전과 가치 증진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립도서관, 11월까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부안군립도서관은 16일 오후 2시부터 도
서관 다목적실에서 2025년 ‘길 위의 인문
학’ 프로그램의 첫 강의를 뜨거운 호응 속
에 시작했다. 올해 ‘길 위의 인문학’은 <고
섬섬에서 부풍까지, 잊혀진 기록과 향>이라
는 주제로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
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강의는 지역 전
문가인 조봉오 강사가 ‘울도국(嶺島國) 위
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참석한 지역
주민 30여 명은 위도의 역사적 기록을 중심
으로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인문학
적 통찰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는 위도의 지리적 중
요성과 다양한 옛 기록들 속에서 어떻게 위
도가 등장해왔는지를 살펴으며 참가자들
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
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
관, 주최하는 부안군립도서관의 대표 인문
학 대중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
터 4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전문가 조봉오
강사와 조인숙 부풍오감차문화원장이 차례
로 수강생들과 만나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
과 차문화등 인문학적 주제를 다룰 예정이
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미니수박 품종별 평가 품질 경쟁력 강화

고창군이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창군
미니수박연합회(회장 강대성)주관으로 ‘고
창 미니수박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에선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각
기관 사회단체장 및 고창미니수박연합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미니수박 품
종의 품질을 평가했다.

현재 고창미니수박연합회는 99명의 회원
이 89.4ha에서 미니수박(4kg이하)을 생산하
고 있다. 품종도 애플수박 계열인 꼬망스와
세자, 그리고 애플수박보다 조금 더 큰 블
랙망고, 블랙보스 등 다양하다.

고창군에선 종묘비를 지원하고, 일반수
박 재배법과 다른 미니수박 재배기술 교육
을 꾸준히 진행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농
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미니수박 토양 및 양
분관리 기술 현장실증 연구사업도 추진하
고 있다.

지난해 고창미니수박연합회는 농촌진흥
청 주관 ‘2024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
지’ 선정 평가에서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
부장관상)에 선정됐다. 7월에는 전국 최초
로 ‘2024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가의 안정적인 생
산 기반 마련과 마케팅 강화에 힘써 지역
농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
나기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북전주농협 고향주부모임, 어르신들에 염색 봉사활동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이 주관하고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전북농협이 지원한 ‘염색 봉사활동’이 지난 16일 반월동 중앙경로당에서 펼쳐졌다.

이날 활동에는 북전주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인근 경로당에 직접 찾아뵙고 염색봉사를 진행하며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정성껏 염색을 해주는 손길에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김영태 기자



군산 옥도면지사협, 거동 불편 어르신께 보행 보조기

군산시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나기운, 공공위원장 전재인)는 17일 관내 만 60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어르신 50세대에 보행 보조기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보행상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발굴한 가정을 방문해 보행 보조기를 전달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설명하며 건강과 안부도 확인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수성동 주민자치회,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행사

정읍시 수성동 주민자치회(회장 최춘식)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세련된 분위기의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17일 진행된 이번 촬영은 어르신 3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장수사진=영정사진’이라는 인식을 덜어내기 위해, 어두운 분위기 대신 밝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연출을 통해 어르신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정읍=김정연 기자

전북대병원, 암생존자가족 산림 치유 프로그램

제7회 암생존자 주간행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6월 ‘암생존자 주간’을 기념해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행사’를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암생존자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체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력 증진은 암 치료 회복과 생존율 향상,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가 주관한 이번 암생존자 주간의 첫 번째 행사는 △산림청 △한국 산림복지진흥원 △국립암센터가 공동 지원하는 산림 치유와 연계한 암생존자 건강증진 행사로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주기 위해 마련됐다.

암생존자 주간의 두 번째 행사인 ‘암 치료 후, 체력 팡팡’은 국립암센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지원하고 전국 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와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이 6월 암생존자 주간을 기념해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행사를 성료했다 <사진=전북대병원>



남원시평생학습관 서예반, 대회 수상자 다수 배출

남원시평생학습관 정규 과정 서예반 수강생들이 ‘제57회 전북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이하 도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예,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등 총 10개 부문에서 열린 경합이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남원시평생학습관 서예반 수강생 중 2명이 초대작가로 선정됐으며, 특선 1명, 입선 4명 등 모두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남원시평생학습관에서 류영근 강사의 지도로 서예반에서 실력을 쌓아왔다.

/남원=정하복 기자

HL만도 익산공장 사회봉사단, 학대피해아동 주거환경개선

3기구대상총 1,500만 원 지원

지난 5일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 HL만도(주) 익산공장 사회봉사단이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아동의 생활공간 정돈, 위생환경 개선, 불필요한 물품 정리 등 향후 개보수 작업을 위한 사전 환경정비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HL만도(주) 익산공장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이며, 총 1,500만 원의 후원금으로 관내 학대피해아동 다자녀 가정 3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 HL만도(주) 익산공장 사회봉사단이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아동의 생활공간 정돈, 위생환경 개선, 불필요한 물품 정리 등 향후 개보수 작업을 위한 사전 환경정비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HL만도(주) 익산공장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이며, 총 1,500만 원의 후원금으로 관내 학대피해아동 다자녀 가정 3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군, 지역인재 육성 위한 따뜻한 기부 이어져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지난 16일 지역인재 육성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임실군 애향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케이위터기술(주) 점진강담사업소가 150만원, 농촌지도자회 임실군연합회가 1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이날제 前 임실군 행정문화국장도 최근 300만원을 기부하여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애·비장애 청소년과 함께한 ‘공감 법콘서트’

정읍에서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웃고 공감하며 법의 가치를 체험한 무대가 펼쳐졌다. 지난 14일 정읍YMCA 녹두홀에서 열린 ‘제1회 장애청소년 공감 법콘서트’가 250여 명의 청중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행사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정읍지구협의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장에인종합복직관이 주관했다. 이학수 시장과 민경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수석검

사가 함께 자리해 학교폭력 예방의 의미에 깊이 공감하며 행사의 취지를 응원했다. 이번 콘서트는 마술 공연과 교육을 접목한 창의적 구성으로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응법, 법적 보호 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무엇보다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한 공간에서 웃고,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은 이 콘서트의 핵심을 상징했다.

/정읍=김정연 기자



김제예수사랑교회, 설립 20주년 맞이 성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5일, 김제예수사랑교회(담임목사 최정호)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역 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교회 20주년을 기념해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긴

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어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

최정호 담임목사는 “20년의 시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을 나누왔다. 교인들과 함께 마련한 이번 기부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등불이 되어 희망을 심는 공동체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금구면, 어르신들께 아·미용 봉사과 삼계탕 나눔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17일 오산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아·미용 서비스와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봉사자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요청에 맞춰 머리를 손질해 드렸으며, 직접 끓인 삼계탕을 대접하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제=온봉기 기자

◇ 17일자 본란 ‘전주덕진소방서 대표 동원초 소방동요대회 금상’ 제목 중 동원초를 전주원동초로 바로잡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一事一言〉



리박스쿨식 극우 세뇌교육 방파제는 ‘정치교육’(2)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가장 잔인한 인류사적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 나치당을 경험한 독일은 전후 중요한 사회적 성찰과정을 거친다. 세계지성을 대표하는 칸트와 괴테의 나라, 당시 가장 진보적이었다고 인정받던 바이마르 헌법을 가졌던 나라에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인간이 탄생하며, 독일인들이 그를 따라 600만 유대인 학살 공범이 되었는지 자문하였다. 독일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은 ‘민주주의자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민주시민인 사람은 없으며, 민주시민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인종주의의 토대가 된 혐오·차별의식과의 절연, 이성적 판단과 비판적 사고, 다양성 존중을 내면화하고 이를 삶속에서 실천할 줄 아는 태도를 함양하는 정치교육 필요성을 자각하고, 연방정부와 각 주마다 정치교육원을 통해 정치문화력 기르는 일에 매진했다. 1976년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도출해 민주시민을 기르는 정치교육 3원칙을 확립했다.

주입과 세뇌를 금지하고,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문제를 논쟁적 방식으로 교실에 들여와 교육하며, 학생의 삶과 결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학교교육 뿐 아니라 성인교육에까지 확장되고 많은 나라에서 보편적 정치교육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안타깝게도 오랜 군사독재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학교교육에서 정치교육은커녕 정치적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해 왔다. 아니 죄악시해 왔다.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는데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교육에서 정치를 말하지 못하게 한 현실은 우리 아이들을 정치냉소주의자나, 정치문맹 상태로 사회에 나가게 하였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법전 속 활자 속에 가두어 버렸다. 그 결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 대신 주어진 정답만을 찾고, 교과서 속 지식습득만이 교육인양 잘못된 교육관이 수십 년 우리 교육을 지배하게 해 왔다.

2010년 소위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려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사회현안이나 정치적 문제를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기시하는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편협한 해석과 이에 기초한 교사정치기본권 박탈 법률로 정치교육을 금지하는 현실은 민주시민교육을 옹호는 족쇄가 되었다. 세월호 사태 직후 세월호 계기교육 교사에겐 징계 협박 공문이 내려가고, 윤석열 탄핵 현재 판결 방송 시청을 문제 삼는 게 여전한 현실이다.

정치교육을 반대하는 이들이

논거로 삼는 헌법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국가권력이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중립성 보장’ 명령이다. 이를 정치교육을 금지하고, 심지어 정치적 문제 자체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논거로 악용하는 이들은 실은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가장 정치적인 목적에 교육을 종속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이 정치문해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다. 금지해야 할 것은 ‘교육의 정치화’이지, ‘정치의 교육화’가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 교과서에 유신 헌법을 넣어 가르치게 하고, 전두환 정권이 북한이 금강산담으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려는 걸 막아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평화의 댐 성금 모금을 강요했던 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행위이며,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이승만·박정희 찬양 세뇌교육을 시킨 리박스쿨, 그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이 ‘교육과정 내 정치편향 차단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김문수 후보에게 전달한 이윤배반적 행태를 보인 것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중립성 원칙을 왜곡한 전형적 사례다.

자신들은 특정 정치세력, 특정 정당, 심지어 특정 정권과 연계해 정치활동은 물론 조직적 정치세뇌교육을 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

어미며 ‘근무시간 외 교사정치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전제로 한 정치교육, 사회현안 교육이라는 이재명 후보 공약을 반대한 이들이 리박스쿨로 드러난 극우 뉴라이트 세력이다. 교육계에 침투해 정치교육 제1원칙인 ‘주입·세뇌 금지 원칙’을 파괴한 뉴라이트 극우세력을 제대로 수사해 발본색원하자.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주입·세뇌 금지, 논쟁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안·쟁점교육, 지식교육에 갇히지 않고 아이들 삶과 결부된 교육. 우리도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원칙을 수립하자. 그리고 그 원칙에 입각한 정치교육을 적극 실시하자. 그것이 혐오와 차별의 극우적 공격과 뉴라이트 역사왜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정치문해력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길이다. 그것이 이준석류 약자혐오정치, 서부지법 폭동을 막아내는 길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키워 낸다

전북자치도가 내수 부진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100억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17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협력해 ‘2025 기업지원사업 설명회’ 및 ‘기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공개된 100억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은 기술개발,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기술 애로 사항의 실질적 해소 등을 포함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중소기업들의 갈증을 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3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래차 부품 전환 지원과 친환경차 기술 공동협력 등을 통해 업계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 뿌리산업 분야에도 2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협력과 공동 발전을 강조한다.

특장차 및 항공신산업 분야에서는 무려 5개의 세부 사업을 포함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다. 특장차 산업 활성화,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수요맞춤형 항공 신산업 육성지원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친환경, 첨단 기술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이들 업종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설명회에 이은 기술 세미나에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상용차 기술과 미래 발전 방향을 심층적으로 전달했고, 한국자동차연구원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개함으로써, 업계의 기술 협력과 공동 발전을 도모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지원과 협력의 지향점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과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경쟁에서 한 걸음 더 후퇴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친환경차의 성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었다.

전북도가 강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이라는 점이다. 개별 기술이나 개별 지원의 효과를 넘어 협력과 공동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설명회는 한 순간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자체, 민간, 연구소, 중소기업이라는 세 개의 축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라는 어려움을 넘어 전북이라는 공동의 기반에서 새로운 희망과 성장을 만들어 내려는 이들의 의지가 한데 모여 있다는 점에서 이번 100억 규모의 지원과 협력의 성과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민간과 협력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과 기술 경쟁력이라는 두 개의 강고한 토대가 한층 단단해질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현실로 발현하기를 바란다.

문화재열전



간재 전우 초상화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일반회화, 인물화
-지정일- 2022년 3월 11일
-시대- 1911년
-소재지-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뉴스 1191-4441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인)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인쇄인 김은주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수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1,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저녁의 소묘 / 한강

어떤 저녁은 피투성이
(어떤 새벽이 그런 것처럼)

가끔은 우리 눈이
흑백 렌즈였으면

흑과 백
그 사이 수없는
음영을 따라

시인 약력 : 1970년 광주광역시 출생. 소설가 한승
원의 딸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3
년 시인으로, 1994년 소설가로 등단했다. '한국소

어둠이 주섬주섬
얇은 남루들을 꺼내고

외등을 피해
걸어오는 사람의
평화도,
오랜 지옥도

비슷하게 희끗한

설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제29회 '이상문
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고 2016년 5월 '채식주의
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다. '몽고반점', '소

표정으로 읽히도록

외등은 회고
외등 갖의 바깥은
침묵하며 잿빛이도록

그의 눈을 적신 것은
조용히,
검게 흘러내리도록

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다수 남겼고 그 영향으로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날렸다.

전북타임스는 독자 여러분을 대변 해 드립니다

N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타임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 공동주최

제13회 전북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 그리기 공모전



전북타임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2012년부터 시작돼 13년간 이어온 대회로 도내 미래 꿈나무들에게 자연사랑 및 자연

보호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한 문예마당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대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대회로 전환된 이후 6회째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전북도 내 17개 시군에서 어린이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그림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주제로, △자연환경이 보존된 청정한 전북,

접수 6월 20일까지...우편·방문 가능 “자연과 공존하는 삶 배우는 기회”

△다양한 전북지역 환경보전 이야기 △순수하고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

참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이며, 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이달 20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해 인정된다.

우편은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전북동) 5층 전북타임스 본사로 접수받는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7월 11일(금) 발표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자치도교육감

상과 전북자치도지사상, 전북자치도의회의장상 및 문화상품권 등이 수여되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4명)에게 전주시장(2명)과 전주시의회의장상(2명) 및 문화상품권을 수여,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등의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 시상식은 오는 9월 13일(토) 전주시의회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상자에 한해 따로 전달한다.

출품된 모든 작품은 향후 전북타

임스 전시회, SNS, 홍보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전북 지역의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전북타임스 최준호 대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내 어린이들이 자연환경과 보호 문제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며, 보존된 청정한 삶의 터전에서 순수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임실군의의회
IMSEIL-GUN COUNCIL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임실군의의회

